

배 포

2024. 9. 5.(목) 11:00

보도시점

배 포 즉시

한국사학진흥재단,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로 폐교대학 구성원의 편리하고 안전한 증명발급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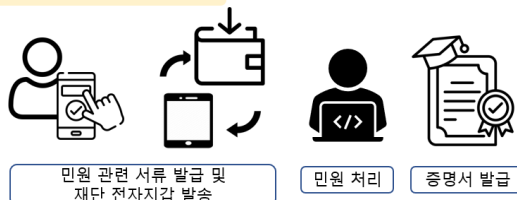
한국사학진흥재단, 폐교대학 구성원 증명발급 민원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도입
전자증명서 모바일 앱을 통한 손쉬운 민원 신청 서류 제출 가능

- 한국사학진흥재단(이사장 이하운, 이하 “재단”)은 폐교대학 출신 구성원들의 증명발급 관련 민원 신청 시 편의 및 보안 강화를 위해 ‘전자문서지갑’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.
- 전자문서지갑은 행정·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를 사용자의 디지털 기기에서 간편하게 저장·열람·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이다.
 -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도입으로 개명, 영문명 등록 등 기재사항 정정, 자격증 재교부 등 폐교대학 민원 신청 시 필수적인 개인 정보가 담긴 민감 서류의 안전하고 편리한 제출이 가능해졌다.

기존



전자문서지갑 도입 후



※ 민원인이 발급한 전자증명서를 재단 명의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, 신청인 본인과 제출 기관만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위·변조가 불가능한 안전한 방식이다.

□ 재단은 2013년 폐교대학 통합 증명발급서비스를 개시한 이후, 현재 총 19개의 폐교대학 출신 구성원 63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14종의 증명서를 온라인 및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.

※ 서비스 대상(19교) : (가나다 순) 강원관광대학교, 건동대학교, 경북외국어대학교,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, 광주예술대학교, 대구미래대학교, 대구외국어대학교, 동부산대학교, 명신대학교, 벽성대학, 서남대학교, 서해대학, 선교청대학교, 성화대학, 아시아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, 한민학교, 한중대학교

- 더불어, 올해 초(‘24.2.) 정부24와 연계한 폐교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증명서를 더욱 쉽게 접근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 중이다.

□ 또한 재단은 폐교대학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의 누락·분실 등으로 인해 증명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“폐교대학 기록물 공모전” 개최, 미이관 기록물 조사·재이관, 유관기관을 통한 기록 보완 등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.

□ 이하운 이사장은 “이번 전자문서지갑 도입이 폐교대학 구성원의 증명 발급 민원 업무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”이라며, “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 또한, “적극적인 증명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기록 보완·발굴을 통해 폐교대학 구성원의 진학 및 취업 등 사회복귀 안전망을 지원하고,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담당부서	폐교대학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 변인영(053-770-2650)
		담당자	주무행정관 한수민(053-770-2651)